

음낭의 크기 변화만 있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꼭 치료를 해야 하나요?

- 성인은 시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낭수종은 별다른 합병증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탈장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가 필요로 합니다.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나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경우 수술적 교정이 필요합니다.

음낭수종은 고환종양과 연관이 있나요?

- 성인에게서는 고환염, 부고환염, 손상, 종양, 뇌실복강단락, 복막투석 등의 요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잘 동반되지만 원인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환종양으로 인한 발생하는 2차적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세심한 검사를 통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음낭수종 수술의 합병증은 무엇이 있나요? 불임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음낭수종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음낭이라는 수술 부위의 특성상 수술 후 출혈,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 적절한 수술 후 처치가 필요하며, 불편함이 생긴다면 즉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낭수종 수술은 음낭의 물혹만을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임신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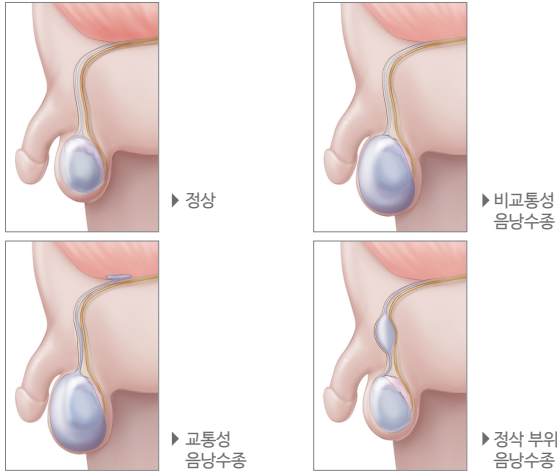
FAQ



성인 음낭 수종

성인 음낭수종이란?

음낭수종은 고환을 감싸고 있는 막에 물이 고여 음낭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고환을 감싸고 있는 막(고환초막)은 고환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에 물이 고이면 음낭에서 물주머니 모양의 혹이 만져집니다. 유아기에 보다 흔하게 발생하지만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음낭수종

원인

출생 전 고환은 신장 근처에서 만들어져 위치하며, 출생 시 고환은 살고랑이라 불리는 길을 통해 음낭 내로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살고랑의 복막 주머니가 다시 개통되는 경우 배에서 음낭으로 복수가 내려와 음낭수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주로 종양, 염증, 손상에 의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삭신경차단술, 서혜부 탈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음낭수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음낭 수종의 증상과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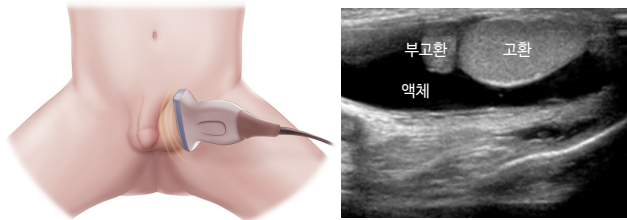
한쪽 또는 양쪽 음낭이 부풀어 오르며, 물이 찬 풍선처럼 무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증은 없으나 음낭이 부풀어 오르면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경우 음낭수종이 아닌 감염이나 고환꼬임 등의 심각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즉시 비뇨 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남성 영아의 약 10%에서 음낭수종이 발견되며, 보통 생후 12개월 안에 특별한 치료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성인 남성에서는 약 1% 정도 발생하며, 6개월 이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낭수종의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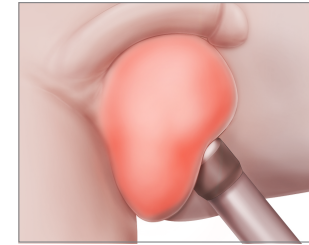
다음의 검사들을 통해 음낭수종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진 : 비교적 간단만 신체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의 음낭 수종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음낭 초음파 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음낭 초음파 : 음낭 초음파를 통해 음낭 내 물주머니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단히 진단 할 수 있습니다.



음낭초음파에서 음낭 내에 물이 찬 소견

- 투과조명 검사 : 음낭에 빛을 비추어 반대편으로 빛이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음낭 초음파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음낭수종의 치료

1. 음낭수종을 치료하는 약물은 없으며, 통증 동반 시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조적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음낭수종이 매우 크거나 통증 또는 감염이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음낭수종이 클 경우 고환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고환꼬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혜부 탈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술은 음낭 또는 사타구니 부위를 절개하여 시행하며, 국소 마취나 전신 마취하에 진행합니다. 경미한 수술로 수술 당일 퇴원하거나, 1~2일 정도의 짧은 입원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과거에는 음낭수종을 세침흡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거의 대부분 재발하게 됩니다. 음낭수종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외에는 수술적 치료가 표준 치료입니다.